

# 帝國의 統治와 敎化의 過程에서

- 樂浪郡出土簡牘을 中心으로

李晟遠(韓國, 全南大)

## 1. 變法과 帝國의 出現

戰國시대 列國이 직면한 화두는 滅亡의 위기를 극복하고 富國強兵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그 현실적인 방법이 '變法'이었음은 기원전 4세기 중엽 秦이 추진한 '商鞅變法'으로 확인되었다. 秦 孝公에게 客卿으로 중용되어 기원전 356년과 350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商鞅變法の 핵심 내용은 토지의 개간(墾田)·측량(算地)·획분(開阡陌), 인구·성별·연령에 따른 정확한 戶口조사, 出家 자녀의 分戶(分異), 戶당 노동력에 부합한 균등한 토지의 지급(授田), 戶당 요역·군역·조세의 징수, 十戶 단위의 連坐(什伍), 전쟁에 세운 功에 따른 民爵의 수여(軍功爵制) 등 대단히 파격적이며 혁신적인 내용이었다.<sup>1)</sup> 연구자들에 의해 소위 '編戶齊民'과 '耕戰之民'의 양성으로 요약되는 商鞅變法の 결과 秦은 기존의 씨족적 전통이 해체되어 국가 주요 시스템이 소농(戶)단위로 재편되었고, 농민은 生産과 戰爭을 겸임하게 되었으며, 授田과 徵收가 戶로 통합되면서 생산의 증가와 재정의 확충이 현저해졌다. 隴西지역에서 출발하여 春秋시기에 西戎에서 겨우 벗어나 중원에 편입된 秦은 전국시대에 變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결국 기원전 221년 동아시아 최초의 帝國을 樹立하였다. 그 외에도 戰國시대의 列國들은 領土 内外에 대규모의 長城을 축조하였고, 도로망과 郵便制를 정비하였으며, 官僚制를 구축하였고 특히 成文法에 근거한 律令制와 文書行政制를 정착시켰다.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대전환의 진전이었다. 그런 점에서 秦帝國의 출현은 결코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결과는 아니었으며 약 500 여 년간 지속되었던 春秋戰國시대의 漸進的 발전 과정의 歸結點이었다. 때문에 秦始皇이 天下를 統一한 후 李斯의 上奏에 의해 선택한 郡縣制는 空虛한 妄想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했기에 추진한 획기적인 中央集權制였다.<sup>ii</sup>

이상의 내용들은 기존의 正史, 文獻資料, 그리고 최근에 대량으로 발견된 出土資料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秦漢 時代의 律令簡牘과 行政文書簡牘은 帝國이 철저한 成文法과 文書行政을 통해 帝國을 운영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하였다. 기원전 3 세기에서 기원후 2 세기에 걸친 秦漢帝國의 시대에 중국은 지중해 유역의 로마제국과 더불어 유라시아 대륙의 그 어떤 문명보다 先進的이었고 壓倒的인 우위에 있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교수는 최근 그의 著作에서 '秦은 歷史上 最初の 近代的 國家였다(Qin is the first modern state in history)'라고 公言하였다.<sup>iii</sup> 특히 당시 동아시아에서 中國은 文字, 律令, 行政,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諸子百家의 思想 등 모든 면에서 先進的이었다. 당시 韓半島와 日本地域은 技術的으로는 靑銅器, 政治的으로는 部族聯盟國家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秦漢帝國 시기는 隋唐帝國 시기에 비하면 동서교류가 제한적이었고, 漢 武帝 이후 본격화된 교류도 西域과의 교류가 중심이었고, 동쪽 韓國과 日本과의 교류는 미비하였다.

## 2. 帝國의 擴張과 樂浪郡 出土 簡牘

그러나 기원전 108 년경 朝鮮 地域은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되었다. 漢과 朝鮮間의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고, 그 결과 漢 武帝는 현재의 滿洲지역과 한반도 平壤 부근 및 그 이남 지역을 장악한 후 그곳에 漢 帝國의 공식적인 행정단위인 郡縣을

설치하였다.<sup>iv</sup> 즉 소위 ‘漢四郡’이 설치된 것이었다. 樂浪郡, 眞蕃郡(-帶方郡), 臨屯郡, 玄菟郡 등의 漢四郡은 각 郡의 存置 기간과 운영이 매우 다양했지만 그 가운데 樂浪郡은 가장 오랫동안 존치하며 漢이 郡守를 파견하며 실질적으로 統治했던 地域으로 많은 遺物과 遺産을 전하고 있다. 특히 樂浪郡에서만 5 座의 무덤에서 簡牘이出土되었는데, 그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sup>v</sup>

	發掘地	發掘時期	出土簡牘	年代	內容
1	平壤 石岩里 194 號墓	1924 年	竹簡 1 枚	1C	墨痕不明
2	平壤 南井里 116 號墓	1931-33 年	木牘 1 枚	2C	17 字 名謁 *
3	平壤 貞柏洞 3 號墓	1961~63 年	木簡 3 枚	B. C. 1C	墨痕不明
4	平壤 樂浪洞 1 號墓	1981~84 年	木簡 6 枚	1C	墨痕不明
5	平壤 貞柏洞 364 號墓	1990 年	木牘 3 枚	B. C. 1C	初元四年戶口簿
			木簡 120 枚	B. C. 1C	論語(先進, 顏淵)

表 〈樂浪郡出土簡牘概要〉 (\*17字 名謁, “緜三匹 故吏朝鮮丞田肱謹遣吏再拜奉 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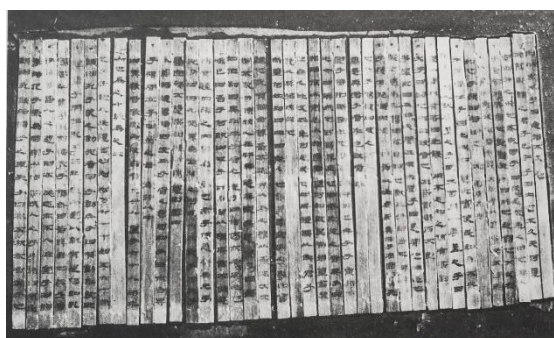


圖 1 〈樂浪郡初元四年戶口簿〉 木牘



圖 2 〈樂浪郡出土《論語》〉 竹簡

以上の發掘概要 가운데 특히 平壤 貞柏洞 364 號墓 發掘은 樂浪 지역 考古 成果에 劃期的인 轉換點이 되었다. 그 이전의 樂浪 簡牘이 量的으로도 매우 疏略하고 대부분 墨痕이 희미하여 判讀이 不可能할 정도로 보존 상태도 양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7월에 진행된 貞柏洞 364 號 무덤의 발굴 결과 무려 120 枚가 넘는 다량의 簡牘이 출토되었고 年號가 明記되어 있어 정확한 연대도 추정이 가능하였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 內容이었다. 漢 元帝 初元 4 年(紀元前 45 年)이 분명하게 明記된 〈樂浪郡初元四年戶口簿〉라는 行政文書가 木牘 3 枚에 記錄되어 있었고, 精巧하게 編綴된 약 120 枚의 竹簡에는 孔子의 《論語》 〈先進〉篇과 〈顏淵〉篇 일부를 전하고 있었다. 이들 簡牘은 시기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가장 이른 시기의 文字 資料이고, 中央集權的 郡縣 行政體系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반영하는 行政文書였으며, 中國의 諸子學을 대표하는 儒家 系列의 經典이 보급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出土資料라고 할 수 있다. 물론 漢帝國이 擴張되고 郡縣支配를 관철한 지역에서 이미 발굴된 居延漢簡, 敦煌漢簡, 額濟納漢簡, 尹灣漢簡 등의 방대한 出土資料를 감안하면 樂浪郡簡牘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보이거나 오히려 초라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漢四郡 지역이 이후 다시 韓國史에 편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지역에서 출토된 이 두 자료의 의미와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 3. 統治와 敎化의 二重 變奏

#### (1) 戶口簿와 郡縣支配

앞서 戰國시대에 列國이 시행한 變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가령 商鞅이 變法을 통

해 秦에서 실시한 分戶令<sup>vi</sup>은 정확한 戶口 照査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기본적으로 戶와 口의 數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性別, 年齡, 身分에 따른 구체적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勞動力에 상응한 授田과 최종적으로는 衡平에 맞는 租稅, 徭役, 軍役의 부과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戰國時代 末期를 거친 秦帝國이나 혹은 秦漢交替期를 통해 수립된 漢帝國 등 격동의 혼란 시기를 거쳐 수립된 새로운 王朝의 가장 시급한 措置는 하루빨리 齊民을 확보하고 本縣과 土地에 歸屬시키는 것이었다. 때문에 流浪하는 亡人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하루빨리 庶民으로 編入시켜 戶口簿에 '書名'하여 登錄시키는 것이었다. 漢帝國을 수립하자마자 高祖가 내린 詔令<sup>vii</sup>의 핵심은 기존 庶人은 물론 以前 時代의 奴婢들마저 本縣에 신고하면 賤職을 免除하고 庶人으로 回復시켜 戶口簿에 登錄시키는 것이었다.

〈樂浪郡初元四年戶口簿〉는 樂浪郡 屬下 25개 縣의 戶口 數 및 그 增減의 推移까지 조사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가령 樂浪郡 屬下 朝鮮縣의 경우 9,678戶, 56,890口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初元 3年 때의 上計 對比 戶는 93개 증가하였고, 口는 1,862名이 증가하였음을 자료는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5개 屬縣을 모두 포함한 樂浪郡 전체의 조사 결과는 43,835戶( ;前年對比 584戶 增加), 280,361口( ;前年對比 7,895口 增加)였다.<sup>viii</sup>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면 漢族과 土着民 間의 구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검토하면 樂浪郡 內 漢族대 土着 人民의 비율은 14% 대 86%였다. 帝國의 운영에 戶口 照査는 編戶齊民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차적인 조치이지만, 특히 帝國이 擴張되어 가며 직면하게 되는 邊境地域 人民의 파악은 관건이었다. 가령 懸泉置漢簡을 통해 파악되는 西北 邊境 羌族의 現況이나, 里耶秦簡이나 古人提漢簡 등에서 파악되는 南蠻지역 土着人들에 대한 狀況 등을 고려하면 樂浪郡의 戶口簿는 漢帝國 東北 邊境地域의 人民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차적인 자료였을 것이다.<sup>ix</sup> 물론 그것은 排他的인 '差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郡縣支配라는 帝國의 基本的인 行政

體系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을 것이다.<sup>x</sup>

이러한 漢四郡의 郡縣支配의 遺産이 이후 韓半島 古代 國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논증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戶口簿는 현재 韓半島 內에서 발견되었지만 漢帝國의 行政體系에 편입되었던 시기였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른다.<sup>xi</sup> 이러한 郡縣體制 下의 文書行政體系는 이후 韓半島 古代 國家에 중요한 遺産으로 분명 繼承되었을 것으로 추정이지만, 현재까지 北韓을 제외한 南韓 地域에서 발견된 초기 簡牘文書들은 6~7 세기경 百濟와 新羅 遺迹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매우 簡單하고 粗野한 수준이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 漢帝國과 邊境地域, 특히 어쩌면 여전히 無文字 단계일 수도 있는 土着人과의 行政的·文化的 融合 정도의 限界를 상정해 볼 수 있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 (2) 論語를 통한 儒敎의 傳播와 敎化

儒敎의 主要 經典들이 孔子가 編纂한 結果物이라는 오랜 믿음이 儒生들에게는 있어 왔고, 孔子 生卒의 歷史는 《史記》에서 당당히 '世家'篇에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孔子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資料이자 儒家의 가장 오래되고 權威있는 문헌은 단연 《論語》이다.<sup>xii</sup> 특히 漢 武帝 以後 儒敎理念이 國家 支配理念으로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論語》의 傳播와 擴散은 곧 儒敎 理念의 확산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孔子 死後 많은 弟子들에 의해 儒家 思想이 확산되었을 것이며 齊魯學派의 활동은 차치하더라도, 漢 武帝 이후 帝國의 領域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論語》도 확산되었을 것이다. 다소 간의 시대 차이는 있지만 실제 內地의 定州漢簡은 물론 西北 邊境 地域의 額濟納漢簡와 敦煌懸泉置漢簡에서, 東南 邊境 地域의 海昏侯漢墓木牘에서, 그리고 東北 邊境 地域인 樂浪郡漢簡에서 《論語》의 일부가 발견된 점은 그런 점에서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sup>xiii</sup>

그러나 樂浪郡에서 《論語》가 발견된 것은 비단 漢帝國의 先進文化이자 士人의 高級 敎養의 標識로서만이 아니라 '文字'의 普及과 流通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xiv</sup> 왜냐하면 樂浪郡簡牘의 文字 記錄은 韓國의 歷史 空間 內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文字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韓半島 內에서 발견된 簡牘 자료는 約 1,000 枚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도 약 70%가 6~세기 경 新羅 시대의 것이 대부분이며 高句麗 時代의 簡牘도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로부터 高句麗 王朝에 文書行政이 全無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高句麗는 百濟나 新羅보다 先進文明이었고 더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녔으며 지정학적으로도 古朝鮮을 繼承하였다. 뿐만 아니라 高句麗, 百濟, 新羅로부터 많은 先進文化를 수용한 同時期 日本에서 대량의 木簡 記錄이 활용되고 있었다는 점은 당연히 한반도 내에서의 文字 文化를 충분히 짐작케 하고 있다.<sup>xv</sup> 물론 한반도에서 발발했던 수많은 전쟁, 그리고 韓國의 土壤이 지닌 강한 酸性土가 簡牘이나 遺物이 잘 전해지지 않는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여도 한반도 내 출토문헌이 매우 적다는 점은 한국 고대사 연구를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기원전 45년 전후의 것이 확실한 낙랑군 출토 〈戶口簿〉와 《論語》는 시기와 내용면에서 정말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아마도 樂浪郡의 小吏였을 가능성이 높은 364號墓의 墓主와 遺族은 죽음의 즈음, 그리고 그의 주검을 彼岸으로 보내며 棺에 담을 副葬品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細形銅劍, 鐵劍, 鐵斧, 短刀 등의 武器類, 간단한 車馬部品과 農器具, 銅鏡과 佩玉 등의 裝身具類, 그리고 몇 점의 陶器와 漆器가 副葬되었다. 소박하지만 구색을 갖춘 부장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帝國의 邊境에서 勤務했던 墓主의 小吏로서의 職能과 敎養을 반영한 文書類를 副葬하였다. 매우 간단하지만 압축적인 두 종류의 문서, 그것은 제국의 선진적인 중앙집권적 군현지배를 상징하는 〈戶口簿〉였으며, 또 하나는

동아시아 歷史上 最高의 聖賢이 弟子와 나눈 '雅言'이자 漢帝國이 標榜하는 高度의 政  
治理念인 儒敎의 經典이자 禮治의 典範인 《論語》였던 것이다. 이들 簡牘 資料는 漢  
帝國의 郡縣支配와 儒敎의 教化라는 二重의 變奏를 너무도 先驗的으로 雄辯하는 것은  
아닐까.

- 
- <sup>i</sup> 《史記》，卷 68，〈商君列傳〉.; 好並隆司，『商君書研究』(溪水社，1990).
- <sup>ii</sup> 以上 戰國時代 總體的 變化相에 대해서는 楊寬，『戰國史』(上海人民出版社，1998，初版 1955); 李成珪，『中國古代帝國成立史研究-秦國齊民支配體制的 形成』(一潮閣，1984); 杜正勝，『編戶齊民』(聯經出版社，1990).
- <sup>iii</sup> Francis Fukuyama,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From Prehuman Times to the French Revolution*, Farrar, Straus and Giroux, 2011.
- <sup>iv</sup> 《漢書》，卷 28 〈地理志〉下.
- <sup>v</sup> 이하 表와 圖는 尹在碩 編，『韓國木簡總覽』(2022, 주류성) 참고. 圖 1 原本은 김정문，〈樂浪遺蹟에서 나온 木簡〉(《朝鮮考古研究》，2008-4)，圖 2 原本은 日本 學習院大學 鶴間和幸敎授 所藏 樂浪遺物照片資料.
- <sup>vi</sup> 《史記》，卷 68 〈商君列傳〉，“民有二男以上不分異者，倍其賦.”
- <sup>vii</sup> 《漢書》卷 1，〈高帝本紀〉上，“民前或相聚保山澤 不書名數 今天下已定 令各歸其縣 復故爵田澤 吏以文法敎訓辨告 勿笞辱 民以饑餓自賣爲人奴婢者 皆免爲庶人.”
- <sup>viii</sup> 尹龍九，〈平壤出土'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研究〉(《木簡과 文字》3，韓國木簡學會，2009)
- <sup>ix</sup> 以上 漢帝國 邊境地域의 人民의 現況에 대한 簡牘資料는 張德芳·胡平生 編，『懸泉置漢簡釋粹』(上海人民出版社，2001)，'歸義羌人名籍'. ;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文物處，〈湘西里耶秦代簡牘選釋〉(《中國歷史文物》2003-1);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中國文物研究所，〈湖南張家界古人堤簡牘釋文與簡注〉(《中國歷史文物》2003-2) 參考.
- <sup>x</sup> 金秉駿，〈中國古代簡牘資料를 통해 본 樂浪郡의 郡縣支配〉(《歷史學報》189 집，2006); 金秉駿，〈樂浪郡初期의 編戶過程과 '胡漢稍別'〉(《木簡과 文字》1 號，2008).
- <sup>xi</sup> 李成珪，〈中國 郡縣으로서의 樂浪〉(東北亞歷史財團，『樂浪文化研究』，2006)
- <sup>xii</sup> H. G. Creel, *Confucius and the Chinese Way*, Harper & Brothers, 1960.
- <sup>xiii</sup> 李成市·尹龍九·金慶浩，〈平壤貞柏洞 364 號墓出土竹簡《論語》에 대하여〉(《木簡과 文字》4，2009. 2011 年 《出土文獻研究》第 10 輯，中華書局 再掲載); 金慶浩，〈前漢時期 出土文獻『論語』와 儒敎理念의 傳播〉(尹在碩 編，『동아시아 論語의 傳播와 桂陽山城』，2022, 주류성).
- <sup>xiv</sup> 李成市，〈동아시아 文字 交流와 論語〉(尹在碩 編，『동아시아 論語의 傳播와 桂陽山城』，2022,



---

주류성)

- <sup>xv</sup> 이경섭, 〈古代 韓日의 文字文化 交流와 木簡〉(《新羅文化》 34, 2009); 권인한, 〈木簡을 통해서 본 古代 東아시아의 文字文化〉(《木簡과 文字》 6, 2010); 橋本繁, 《韓國古代木簡の研究》(吉川弘文館, 2014)